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6-08호 (2026.08.24)

■ 이 슈

(경기) 2026년 상반기 국내
및 인천시 수출 현황 점검

■ 주요 산업 현황

(제조) 바이오산업 시장 동향

■ 국내 정책동향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6-08호 (2026.08.24)

Cotents

I. 이 슈

(경기) 2026년 상반기 국내 및 인천시 수출 현황 점검 1

II. 주요 산업 현황

(제조) 바이오산업 시장 동향 7

(부록)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 10

III. 국내 정책동향

(경제) 8월 말부터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시범운영 11

(경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11

(경제) 2027년 중위소득 올해 대비 6.7% 인상, K자형 양극화 적극 대응 12

(산업) 농식품부, '제1차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 발표 12

(산업) 복지부,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 수립 13

(산업) 산업부,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성과 및 향후 계획 발표 13

(산업) 정부,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1차)' 발표 14

(산업) '제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8월 20일 모집 공고 시작 14

연구진

최태림 인천연구원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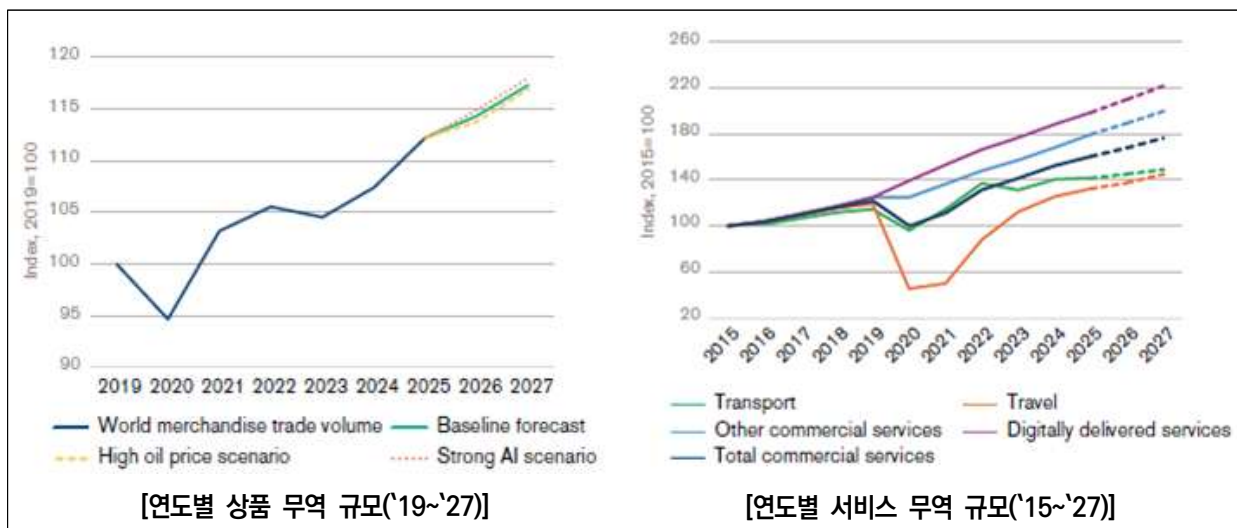
상민경 인천연구원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연구원

경기> 2026년 상반기 국내 및 인천시 수출 현황 점검¹⁾



#글로벌 무역 #성장세 약화 #지정학 분쟁 #반도체 수요

- 2025년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를 보였던 국제 무역 경기의 2026년 성장세는 전년대비 소폭 완만해질 전망으로, 지정학적 분쟁으로 인한 고유가, 관광 감소 등 부정적 요인과 AI 관련 투자 붐 등 긍정적 요인의 영향 정도에 따라 2026년 국제 무역 성장세의 변동이 예상²⁾
 - 2025년 국제 무역은 AI 관련 품목에 대한 수요가 무역 정책 불확실성 및 관세 증가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며 빠르게 확대되었으나, 중동 지역의 지정학 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2026년 및 2027년의 국제 무역 성장세는 다소 약화할 전망
 -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적 관세 정책과 지속되는 지정학적 분쟁으로 인해 글로벌 시장의 전반적인 무역 비용이 상승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지정학적 분절화가 빠르게 확대 중인 상황
 - 운송·여행의 주요 경유지이자 거점인 중동 지역의 분쟁이 장기화함에 따라 △유가 상승 △물류 운송 차질 △여행객 감소 등 상품 무역과 서비스 무역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
 - 다만, 중동 지역의 분쟁이 가까운 시일 내 조정되어 유가·물류·관광 제한 등의 문제가 해결되고, 글로벌 시장에서 AI 관련 수요·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면 국제 무역 규모의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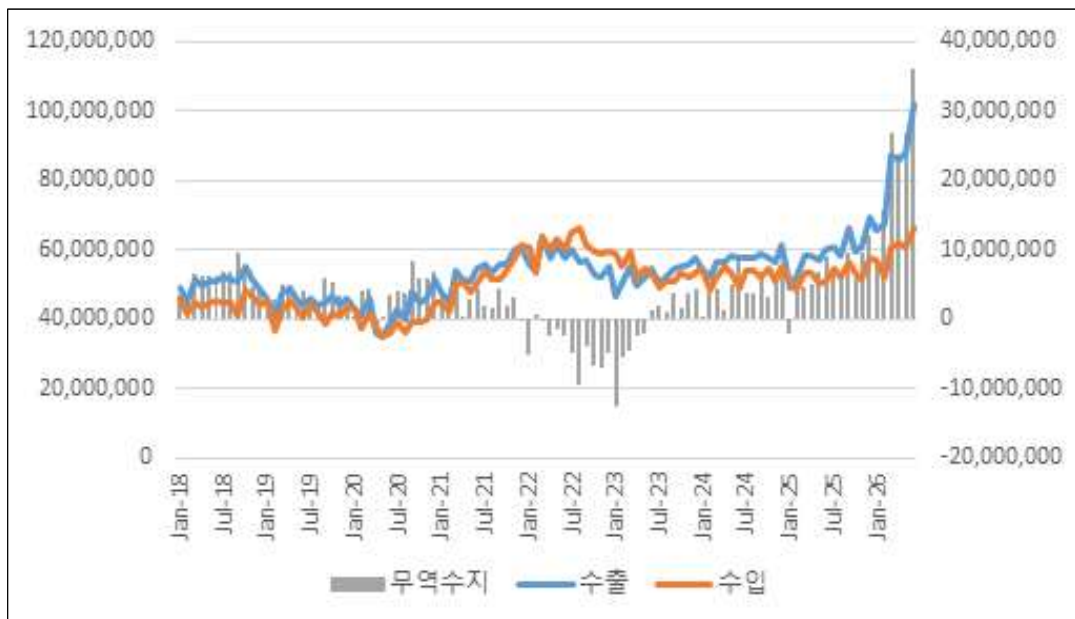
* 자료 : WTO(2026.03)

* 주 : 2026년, 2027년은 시나리오에 따른 전망치를 의미

[그림 1] 연도별 국제 무역 규모 추세 및 전망치

- 1) 금번 이슈에 포함된 국내 및 인천시 수출액 관련 자료는 한국무역협회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2026년 6월 한국무역협회의 MTI코드가 일부 수정됨에 따라 과거 발간 자료와 품목 등의 분류에 일부 차이가 존재.
- 2) UNCTAD(2026.07), WTO(2026.03) 참조 및 재구성.

- 전국 수출액은 2025년 7월 이후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국내 주요 수출 품목의 수출액이 크게 증가하여 2026년 상반기 전국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48.3% 증가
- 2026년 상반기(1월~6월) 수출액 누계는 전년동기대비 48.3% 증가한 약 49,635천만 달러, 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16.7% 증가한 약 35,866천만 달러를 기록
 - 상반기에는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한 반도체를 중심으로 20대 주력 품목 중 14개 품목이 전년동기대비 증가했으나, 양대 수출 품목 중 하나인 자동차의 경우 친환경차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미국 관세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류 차질 △중고차 수출 감소 등으로 인해 수출액 소폭 감소³⁾
 - 2025년 이후 수출액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데 비해 수입액은 다소 완만하게 증가함에 따라, 무역수지는 전년동기대비 402.2% 증가한 13,769천만 달러 수준
 - 국내 10대 수출 품목⁴⁾ 중 △컴퓨터(261.9%) △반도체(162.6%) △석유제품(38.5%) 부문에서는 수출액이 전년동월대비 크게 증가했으나, △자동차부품(-6.3%) △철강판(-6.0%) △자동차(-1.2%) 부문은 감소
 - 우리나라의 7대 수출국⁵⁾을 대상으로는 모든 국가의 수출액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가운데, △중국(-430.9천만 달러) △일본 (-649.2천만 달러) △대만(-142.9천만 달러)에 대한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홍콩 △대만 △베트남을 제외한 4개 국가에서 전년동기대비 수출액 증가 및 수입액 감소 기록



*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수출입 무역통계' 참고 및 재구성(2026.08.05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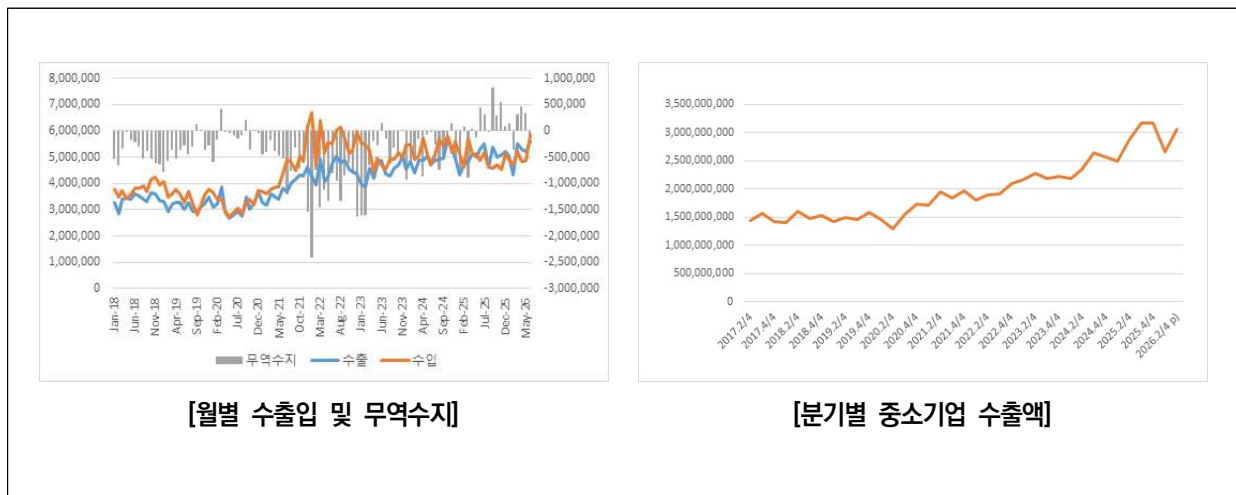
* 주 : 동 그래프는 1,000\$ 단위로 작성

[그림 2] 월별 무역 수출입 추이(2018.01~2026.06)

- 3) 20대 품목 중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선박 △석유제품 △석유화학 △이차전지 △전기기기 △비철금속 △농수산식품 △화장품 △섬유 △바이오헬스 등 14개 품목은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증가 △자동차 △자동차부품 △일반기계 △철강 △생활용품 △가전 등 6개 품목은 전년동기대비 감소.
- 4) 한국무역협회의 MTI 코드 분류에 따른 2026년 1월~6월 수출 누계액 기준 우리나라 10대 수출 품목은 ①반도체 ②자동차 ③석유제품 ④컴퓨터 ⑤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⑥합성수지 ⑦자동차부품 ⑧무선통신기기 ⑨철강판 ⑩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순.
- 5) 한국무역협회의 MTI 코드 분류에 따른 2026년 1월~6월 수출 누계액 기준 우리나라 7대 수출 대상국은 ①중국 ②미국 ③베트남 ④홍콩 ⑤대만 ⑥일본 ⑦싱가포르 순.

○ 인천시는 수출액 및 수입액이 모두 등락을 반복하며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액의 경우 지난 3월부터 4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증가

- 2026년 1월~6월 인천시 수출 누계액은 전년동기대비 5.9% 증가한 약 3,106천만 달러, 수입액은 0.6% 감소한 약 3,040천만 달러 수준으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상반기 무역수지 누계액이 흑자를 기록
 - 2026년 6월 기준 인천시 수출액은 전년동월비 5.8%, 수입액은 20.0% 증가하는 등 2023년 이후 수출액과 수입액의 격차가 감소하는 추세
- 인천지역 중소기업 수출액은 2022년 3분기부터 전년동기대비 증가하는 추세로, 2026년 2분기 기준 전년동기대비 6.2% 증가한 약 305.1천만 달러를 기록
 - 인천시 중소기업 수출은 2025년 4분기 및 2026년 1분기에 전기 대비 각각 0.2%, 15.9% 감소하며 잠시 주춤했으나, 2026년 2분기 전년동기대비 6.2%, 전기비 14.5% 증가하며 추세적 증가세



- *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수출입 무역통계’, 국가통계포털(KOSIS) ‘중소기업 수출동향’ 자료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월별 수출입 및 무역수지 그래프는 1,000\$ 단위로 작성되었으며, 좌측은 수출입액, 우측은 무역수지를 기준으로 작성
 2 : 분기별 중소기업 수출액 그래프는 \$ 단위로 작성

[그림 3] 인천 수출입 동향(2026.06)

○ 관세, 지정학 분쟁 등 대외 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2026년 상반기 누계 기준 인천시 수출액은 품목별·국가별로 증감에 차이

- 아래 [표 1]은 인천시의 10대 주요 수출 품목으로 2026년 상반기 누계 기준 반도체, 의약품, 자동차 등 상위 3개 품목의 수출액이 인천시 전체 수출액의 약 5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집중도가 전년동기대비 1.1p% 상승⁶⁾
 - 10대 수출 품목의 무역수지 누계액은 약 940.9천만 달러로, 자동차부품 및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외한 8개 품목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 철강판(-9.9%), 자동차 부품(-7.8%) 등 일부 품목이 대외 요인의 영향으로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6)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분석에 따르면 인천시의 수출 상위 3개 품목(시점별 항목 동일)의 비중이 2023년 5월 누계액 기준 44.2%, 2024년 4월 누계액 기준 49.0%, 2025년 6월 누계액 기준 53.2% 수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20.2%), 비누·치약 및 화장품(32.0%) 등의 수출액 크게 증가함에 따라 10대 품목의 상반기 누계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5% 증가

- 10대 수출 품목의 현시비교우위(RCA) 분석 결과 △의약품(10.65) △석유화학 중간원료(3.50) △비누·치약 및 화장품(2.67) 등 8개 품목이 다른 시도에 비해 비교우위를 갖는 것으로 확인⁷⁾되었으며, △철강판(2.17) △무선통신기기(1.43) △반도체(0.73)의 경우 지난해보다 비교우위가 더욱 낮아진 것으로 분석⁸⁾
- 인천시 전체 수출액 중 약 35.9%는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⁹⁾인 것으로 확인되며, 10대 주요 수출국 중 △대만(-24.3%) △튀르키예(-5.1%) △인도(-0.6%) △미국(-0.3%) 등 4개국에 대한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감소

[표 1] 인천 주요 품목별 무역 수출입 추이(1월~6월 누계)

(단위 : 천만\$, %)

구분	2025년					2026년				
	수출	전년비	수입	전년비	수지	수출	전년비	수입	전년비	수지
전체 품목	2,933	1.9	3,058	-1.4	125	3,106	5.9	3,040	-0.6	66
반도체(831)	842	5.1	1,050	17.5	-209	878	4.3	920	-12.4	-42
의약품(931)	338	26.8	71	-11.2	267	407	20.2	97	36.2	310
자동차(741)	380	4.9	8	76.6	372	401	5.3	5	-32.6	395
철강판(613)	132	-8.4	14	5.0	118	119	-9.9	14	-3.3	105
비누치약 및 화장품(227)	89	-6.2	1	6.5	88	117	32.0	1	-1.1	116
무선통신기기 (812)	98	-13.4	33	1.1	64	89	-9.2	36	8.9	53
금·은 및 백금 (111)	16	88.4	32	76.6	-15	83	406.5	70	121.9	12
석유화학 중간원료(212)	38	-442	0	-25.6	38	59	56.3	0	129.3	59
자동차부품 (742)	56	4.4	71	-15.0	-16	51	-7.8	81	13.4	-30
반도체 제조용 장비(133)	57	31.6	39	14.3	18	51	-10.5	89	131.1	-38

*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수출입 무역통계' 참고 및 재구성(2026.08.06. 기준)

* 주1 : 수출입 품목의 구분은 MTI코드의 3자리 숫자를 이용

2 : 전체는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주요 수출 품목은 2026년 6월 누적 수출액을 기준으로 상위 10대 수출 품목에 해당하는 품목을 선정하여 작성하였으며, 전년동기비 증감률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7) 현시비교우위(RCA) 분석이란 특정 국가(지역) 및 품목의 비교우위를 분석하는 것으로, 지역 단위로 했을 때는 $\frac{(\text{지역 } i \text{ 품목 수출액}) / (\text{지역 총 수출액})}{(\text{국가 } i \text{ 품목 수출액}) / (\text{국가 총 수출액})}$ 을 이용하여 산출하며, 값이 1 이상일 때 비교우위를 갖고, 1 미만이면 비교열위를 갖는 것으로 해석. 인천 10대 수출품의 품목별 RCA는 △의약품(10.65) △석유화학 중간원료(3.50) △비누치약 및 화장품(2.67) △철강판(2.17) △자동차(1.78) △금·은 및 백금(1.70) △반도체 제조용 장비(1.46) △무선통신기기(1.43) △자동차부품(0.82) △반도체(0.73) 순.
- 8) 2026년 상반기 누계 기준 10대 품목의 2025년 상반기 RCA는 △의약품(7.22) △철강판(3.23) △석유화학 중간원료(1.96) △비누치약 및 화장품(1.83) △무선통신기기(1.48) △반도체(1.31) △자동차(1.19) △반도체 제조용 장비(0.84) △금·은 및 백금(0.74) △자동차 부품(0.59).
- 9)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인천시의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2025년 6월 누계액 기준 38.1%에서 2026년 6월 누계액 기준 35.9%로 소폭 감소.

[표 2] 인천 주요 국가별 무역 수출입 추이(1월~6월 누계)

(단위 : 천만\$, %)

구분	2025년					2026년				
	수출	전년비	수입	전년비	수지	수출	전년비	수입	전년비	수지
중국	610	-21.4	456	6.5	154	612	0.3	491	7.7	121
미국	506	-15.2	300	-6.0	206	505	-0.3	396	31.9	109
베트남	359	62.4	272	56.1	87	449	25.1	83	-69.4	366
홍콩	84	18.5	16	-71.5	68	164	94.9	10	-35.8	153
대만	173	18.7	588	16.4	-415	131	-24.3	635	8.0	-504
싱가포르	104	2.5	55	-4.6	50	120	15.2	63	14.8	5.7
인도(인디아)	85	27.2	11	-34.5	74	85	-0.6	12	12.1	72

*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수출입 무역통계' 참고 및 재구성(2026.08.06. 기준)

* 주 : 주요 수출 대상국은 2026년 6월 누적 수출액을 기준으로 상위 7대 수출 대상국에 해당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작성하였으며, 전년동기비 증감률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AI 및 반도체 등 품목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지속됨에 따라 2026년 하반기에도 우리나라 수출 경기는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나, △비IT 부문의 수출 부진 지속 △주요국의 관세·비관세 정책 불확실성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 하방압력 등이 수출 성장세에 제동을 걸 가능성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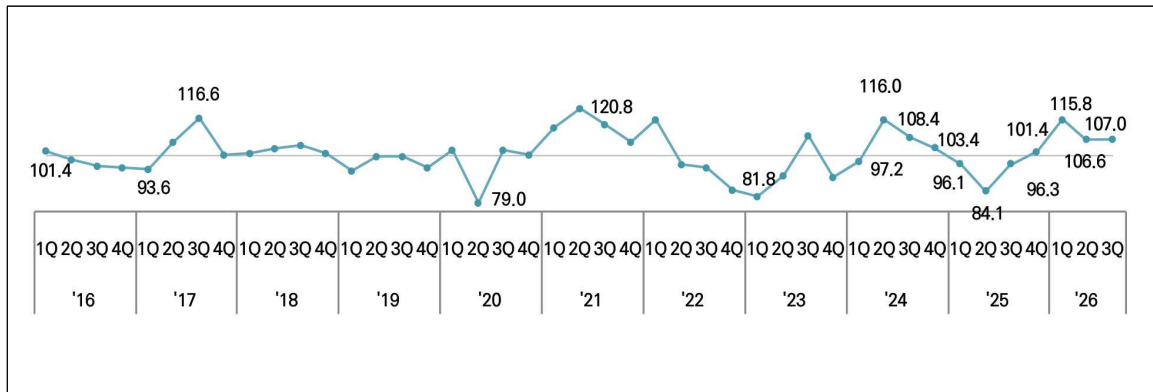
-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등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은 전 세계적으로 AI 인프라 투자가 지속됨에 따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부문의 수출 호조가 지속되며 수출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
 - 국가 간 분쟁 및 주요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AI 관련 투자 확대 및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출액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26년 재화수출은 전년대비 4.9% 증가할 것으로 기대¹⁰⁾
 - 다만 △고유가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주요국 긴축기조 전환(기준금리 상승) △美 관세정책 불확실성 등 국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실제 수출 성장률은 다소 완화될 전망¹¹⁾
- 한국무역협회의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6년 3분기 국내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는 107.0으로, 2025년 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상회하며 긍정적인 전망이 지속¹²⁾
 - 품목별로는 글로벌 수요에 힘입어 반도체(142.6), 무선통신기기·부품(120.3), 선박(115.7) 등 품목은 2분기 대비 수출 여건이 개선되고, 원료·부품 가격 상승 및 시장 가격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전기·전자제품(74.1),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76.0), 섬유·의복제품(77.4) 등 품목은 수출 경기가 전분기대비 둔화할 전망
 - △원자재 가격 상승(24.7%) △물류비용 상승(17.9%) △환율변동성 확대(13.9%) 등이 수출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힌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지정학적 분쟁의 종결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¹³⁾ 당분간 이 같은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

10) 한국은행(2026.05)의 실질 GDP 기준 전망치. 금융연구원(2026.05)은 2026년 수출 증가율을 6.1%, 현대경제연구원(2026.04)은 24.7%로 전망.

11) 현대경제연구원(2026.04), 한국은행(2026.05), 산업연구원(2026.05), 한국금융연구원(2026.05) 등 참고.

12)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2026.06).

13) 연합뉴스(2026.06.18.), 연합뉴스(2026.08.09.), 이데일리(2026.08.12.) 등 참고.



*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2026.06)

* 주 : 100 이상은 경기 개선 전망을, 100 미만은 경기 악화 전망을 의미

[그림 4] 분기별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 추이(2016-2026)

○ 최근 인천시 수출은 5개월 연속 전년동월비 증가하는 등 경기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품목별 수출 경기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대외 환경 불확실성 요인이 지속되는 만큼 대외 이슈 모니터링 강화 및 수출기업 지원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

- 인천시 수출은 △반도체 호조 △수출 비용에 영향을 주는 유가의 안정화 전망 △의약품 위탁수주 생산 증가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전년동월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반도체, 의약품, 자동차, 화장품 등 지역의 주요 수출 품목이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주요 수출 대상국인 중국에 대한 美 관세의 영향이 다소 약하게 나타나고 있어 인천시 수출은 하반기에도 완만하게 증가할 전망
- 다만 △원화 환율 △지정학적 분쟁 장기화 △고유가 지속 △주요국 경제·무역 정책 불확실성 등 수출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산재해 있으므로, 대외 여건 변화 및 품목별 수출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일괄적인 수출기업 지원에서 벗어나 산업별 맞춤형 지원전략을 고민할 필요
 - 최근의 수출 경기 호조는 수출 물량 그 자체의 증가보다는 주요국 대비 원화 평가절하 및 품목 단가 상승 등의 요인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글로벌 가격 변동에 따라 수출액 규모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 존재
 - 지정학적 분쟁이 장기화함에 따라 △원자재 가격 △물류비용 △원유 공급차질 우려 △유가 상승 등을 자극하고 있어 주요국 경기에 따라 수출액이 감소 전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외 여건 변화 및 주요 수출 대상국 경기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요구
 - 한편, 인천시 수출의 경우 반도체 및 바이오 분야의 수출 경기는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이외 품목들의 경우 전년동월비 및 전월비 감소세를 보이는 등 품목에 따라 수출 경기에 차이를 보이는바, 수출기업 지원책을 산업군 및 수출 지역별로 구분하여 효율적인 지원전략을 수립할 필요

제조 > 바이오산업 시장 동향¹⁴⁾

#화장품 #기타 화장품 #의약품

◇ 2026년 7월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은 화장품 부문과 바이오헬스 부문이 모두 전년동월비 증가하며, 수출 호조세를 기록¹⁵⁾

- 화장품 부문은 전년동월대비 37.8% 증가한 1,351백만 달러로, 지난 3월 이후 5개월 연속 두 자릿수의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을 기록하며 수출액이 크게 증가
 - 국내 화장품의 우수한 제품력과 브랜드 인지도 확산에 따라 미국, EU 등 기존 주요 시장 이외에 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면 수출 규모가 확대
- 바이오헬스 부문은 신규 제품이 미국, EU 등 주요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점유율이 확대되며 9개월 연속 전년동월비 수출 증가세
 - 의약품이 전년동월비 46.8%, 의료기기는 전년동월비 8.1% 증가하는 등 바이오헬스 전 부문의 전년동월대비 수출액 증가에 따라, 바이오헬스 부문 수출액은 전년동월비 30.4% 증가한 1,574백만 달러를 기록
 - 바이오시밀러 신제품의 해외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으며, 위탁생산 수주가 증가하며 최대 수출시장인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액이 확대

[표 1] 국내 바이오산업 수출 추이

(단위 : 백만\$, %)

구분	'25.12	'26.01	'26.02	'26.03	'26.04	'26.05	'26.06	'26.07
화장품 (증감률)	1,065 (21.8)	1,025 (36.1)	914 (3.2)	1,185 (26.2)	1,352 (31.3)	1,174 (23.4)	1,328 (41.2)	1,351 (37.8)
바이오헬스 (증감률)	1,602 (27.4)	1,349 (16.3)	1,330 (7.0)	1,522 (6.3)	1,639 (18.3)	1,442 (5.2)	1,915 (14.0)	1,574 (30.4)
의약품 (증감률)	933 (28.2)	900 (17.0)	902 (18.0)	929 (2.4)	1,120 (26.5)	962 (5.3)	1,296 (16.8)	1,022 (46.8)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월별 수출입동향(2026.08.01.)'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로 표기

2 : 각 자료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14) 2026년 6월 1일부터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수출 품목 분류체계인 MTI코드가 변경됨에 따라, 수출입 통계의 항목 구분 및 실적 수치가 전반적으로 수정됨.

15) 산업통상자원부 '월별 수출입동향(2026.08.01.)' 참고.

○ **(전국)**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 경기는 전년동월대비 개선되었으며, 수출액은 2025년 11월 이후 전년동월비 증가세 지속

- **(생산지수)** 2026년 6월 전국 바이오산업 생산 경기는 모든 부문에서 전년동월대비 개선
 - 화장품 관련 전국 생산지수는 전월대비 3.6%, 전년동월대비 2.8% 증가한 90.3으로, 2024년 하반기부터 80~95 사이 박스권에서 보합세
 - 의약품 생산지수는 전월대비 14.6%, 전년동월대비 9.0% 증가한 176.4로, 경기 호조세 지속
- **(품목별 수출액)** 2026년 7월 바이오산업 수출 총액¹⁶⁾은 전년동월대비 41.6% 증가, 전월비 9.4% 감소한 237.7천만 달러 수준으로, 모든 부문에서 전년동월비 증가
 - 바이오산업의 총수출액은 2025년 11월 이후 8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화장품, 기타 화장품, 의약품 수출액이 전년동월대비 각각 37.8%, 79.0%, 46.8% 증가하며 수출액 증가에 기여
 - 화장품 부문의 경우 수출액이 전월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의약품 부문이 전월대비 21.0% 감소하여 수출 총액이 전월대비 소폭 감소

○ **(인천)** 인천시의 바이오산업은 생산 경기 호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수출액도 완만한 증가세 지속

- **(생산지수)** 2026년 6월 기준 화장품 관련 생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4.9% 증가한 145.6, 의약품 생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3.7% 증가한 378.6을 기록하며, 꾸준한 생산 호조를 지속
- **(품목별 수출액)** '26년 7월 인천시 바이오산업의 총수출액은 등락 폭이 크게 나타나는 전국 추세와 달리 완만한 수준의 증가세
 - 화장품 및 기타 화장품 수출액이 전월대비 각각 15.0%, 26.8% 증가하였으나, 의약품 부문이 전월비 33.3% 감소하며 총수출액 증가세가 다소 약화
 - 인천시 바이오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약품 부문의 수출이 2025년 11월 이후 전년동월비 증가세가 지속되며 총수출액 증가에 기여

[표 2] 국내 바이오 관련 산업생산지수 및 증감

지역	항목	'26.03	'26.04	'26.05 (p)	'26.06 (p)	'25.06	전월비 (%)	전년 동월비 (%)
전국	화학물질 등 제조업	93.5	90.6	87.2	90.3	87.8	3.6	2.8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87.8	90.7	83.1	89.9	80.1	8.2	12.2
	의약품 제조업	178.4	195.1	153.9	176.4	161.8	14.6	9.0
인천	화학물질 등 제조업	141.5	146.6	125.7	145.6	126.7	15.8	14.9
	의약품 제조업	408.6	503.3	307.1	378.6	333.1	23.3	13.7

*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시도/산업별 광공업생산지수(2020=100)'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산업생산지수 파악에 활용한 항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구분하였으며,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C20)' 및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C204)',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의 자료를 이용함. 인천지역 자료는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상위 항목을 이용

2 : 생산지수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하는 원지수를 이용하였으며,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 가능

16) 화장품(MTI2273), 기타 화장품(MTI2279), 의약품(MTI931)의 수출액을 더한 합계값을 의미.



[화장품(MTI2273)]



[기타 화장품(MTI2279)]



[의약품(MTI931)]

* 자료 : 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 수출입 통계’ 자료 참고 및 재구성

* 주 1: 수출 금액은 1,000\$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그래프 좌측은 전국 기준, 우측을 인천 기준으로 작성

2: 2026년 6월 1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수출 품목 분류체계인 MTI코드가 변경되어 수출입 통계의 항목 구분 및 실적 수치가 전반적으로 수정

[그림 1] 바이오 품목별 수출 동향(2026.07)

[부록]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 (2026.07 잠정)

(단위 : 십만\$, %)

	전국					인천				
	수입		수출		수지	수입		수출		수지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반도체	151,227	33.4	454,171	127.2	302,944	24,867	16.8	21,204	-12.8	-3,663
자동차	15,717	-18.3	83,358	8.3	67,641	1,131	31.2	7,905	7.5	6,774
기계장비	87,193	41.6	136,448	82.3	49,225	3,505	33.8	3,987	-33.3	482
바이오-의약	11,237	20.4	8,599	47.2	-2,638	1,933	85.1	5,889	51.4	3,956
바이오-화장품	1,977	10.9	13,041	37.4	11,063	36	27.1	2,256	36.5	2,220

* 자료 : K-stat 무역통계 '품목별, 지역별 수출입 통계' 참고 및 재구성

* 주1 : 각 산업의 통계 원자료 참고 시 품목명은 순서대로 △전자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HS85)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 부속품(HS87)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HS84) △의료용품(HS30)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와 화장품, 화장용품(HS33) 등

2 : 각 지표의 증감은 전년동월대비 비율로 표기

경제

8월 말부터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시범운영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신용평가체계 개편 3차 T/F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 도입 방안에 따라 마련·개발한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를 오는 8월 말부터 16개 은행에서 시범운영할 예정
- 금융위는 8월 말부터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의 시범운영 참여은행을 대폭 확대해 16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2조 2,000억 원 규모의 사업자 대출에 SCB를 적용할 계획
- SCB는 매출, 업종, 상권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업종별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AI 기반 신용평가모형으로, 신용정보원이 산출한 성장등급(S등급)을 개인신용조회회사(CB)가 기존 신용등급과 결합해 금융회사에 SCB등급을 제공
- 당초 참여기관인 기업·신한·국민·우리·농협·하나·제주 은행은 8월 말부터 시범운영 개시하고 추가 참여기관인 케이·카카오·토스·수협·iM·부산·경남·광주·전북 은행은 2026년 하반기 중 시범운영을 개시할 예정
- 금융위는 추후 개인사업자 전용 사이트 대출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평가에도 SCB의 적용을 확대할 계획으로, 금융권이 소상공인 대출 심사에 SCB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SCB 활용 절차를 구체화하고 면책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

경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산업통상부

- 지난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국내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 지원책이 마련
- 개편안에 따른 세액공제는 녹색전환·경제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산업 및 국내생산기반이 취약한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 부품 등 6대 분야에 적용될 예정
-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 규모가 결정되며, 오는 203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동 공제는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공제기간 마지막 3년에는 공제액을 점감하고,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동일하게 통합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을 배제
- 산업부 및 재경부는 세제개편안 관련 후속 법령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단체와 협의를 거쳐 동 공제 지원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

#보건복지부

◇ 지난 7월 28일 개최된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①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②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③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등을 심의·의결

-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폭넓게 활용
- 금번 위원회가 의결한 신규 산정 방식은 차년도 기준 중위소득 산정 시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소비자물가지수·실질 GDP 등 주요 사회·경제지표를 반영한 증가율 보정을 통해 가금복 중위소득의 변동성과 시차를 보완
- 신규 산정 방식에 따라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649만 4,738원에서 6.70% 인상된 692만 9,885원으로 결정
 - 이에 따라 생계급여의 경우 1인 가구 최대 지급액이 약 5만 5,000원, 4인 가구 최대 지급액은 약 14만 원 인상되는 등 저소득층 생활 수준이 향상되어 K자형 양극화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급여별 선정 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이며, 주거급여 중 임차 가구의 기준임대료와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는 일부 인상할 계획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가 그린바이오산업과 관련한 △시장 규모 확대 △선도기업 육성 △지역특화 클러스터 고도화 △기술 수준 증진 등의 내용을 담은 '제1차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27~'31)'을 발표

- 동 계획은 2031년까지 △시장 규모 10조 원 달성 △매출 100억 원 기업 300개 육성 △글로벌 기술 수준 90% 돌파를 목표로, 첨단 생명공학기술과 인공지능(AI)의 융합을 통해 농업·식품 분야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는 '그린바이오산업'을 국가차원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4대 성장전략(RISE)을 제시

구분	주요 내용
Regional	• 전국 7개 육성지구(강원·경기·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중심 지역특화 클러스터 조성 • 벤처캠퍼스 7곳, 첨단분석시스템 2식, 산업화시설 4곳 등 연구개발-제품화 공공 인프라 확대 • 기업-농가 간 계약 재배 확대를 통한 안정적 원료 공급체계 구축
Innovative/Industrial	• 정부 모태펀드 기반 그린바이오 펀드 규모를 2031년까지 2,429억 원으로 확충하고, 정책금융 융자 보증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시제품 제작부터 상용화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
Smart	• '그린바이오 AX 플랫폼' 구축을 통한 연구개발 기간 단축 및 소재 발굴 성공률 진작 등
Enabling/Enhancing	• 그린바이오 계약학과를 2031년까지 5개 대학 100명 규모로 확대해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 • '그린바이오 톡'과 산업 발전 협의회를 통한 현장 애로 상시 발굴 및 규제 혁신 추진

#보건복지부

- 정부가 중대·희귀·난치질환 환자가 국내에서 안전하게 첨단재생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임상연구 및 치료 등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2026~2030년)'을 수립·발표
 - 금번 2차 계획은 지난 1차 계획을 통해 마련된 첨단재생의료 중앙심의체계 및 안전관리체계, 임상연구 성과 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이용가능한 치료 및 국산 치료제가 제한적인 한계를 보완하고 환자가 체감할 수 있는 치료 성과를 확대하는데 중점
 - 해외 원정치료 수요가 높은 무릎골관절염, 혈액암, 재발성 교모세포종 등을 대상으로 정부 주도의 다기관 임상연구를 추진하고 국내 치료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기존 방식으로 치료제 개발이 어려운 분야에 대해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개별 맞춤형 치료개발 모델 및 중증·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공적 지원방안을 검토
 - AI·바이오빅데이터·바이오프린팅 등을 활용해 세포기반 인공조직·유전자 편집·인공혈액·이종장기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 및 공익적 연구를 확대하고, 국산 소재·부품·장비 개발과 핵심원료 공급 안정화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치료기술 육성 및 국민 체감 치료·산업 성과를 창출할 계획
 - 또한 재생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계획 제출 의무 △지정갱신제 도입 △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이상반응 보고체계 개선 등을 통해 치료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를 고도화하는 한편, 첨단재생의료 연구·치료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여 국내 첨단재생의료 연구·치료를 활성화할 계획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부가 지난 8월 4일 업무보고에서 국내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의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
 - 2025년 9월 출범한 M.AX 얼라이언스는 올해 2월 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지역AX를 추진하는 산단AX 분과를 신설하여 AI팩토리, AI반도체, AI로봇 등 분과별 △국산 제조AI 모델 개발 △AI제품 핵심부품 개발 △산단입주기업 AI 혁신 등을 추진 중
 - 산업부의 AI팩토리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받은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평균적으로 생산성 30.1% 증가 및 불량률 15.5% 감소를 달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M.AX의 성과가 제조 현장에서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
 - 산업부는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고품질 제조데이터 수집 및 AI모델 개발·실증 지원 △명장·숙련공의 노하우의 데이터화 △주요 부품 국산화 △AX 실증산단 확대 △M.AX 아카데미 운영 등을 추진하여 기술·데이터·인재가 선순환하는 제조 AX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
 - 또한 금융위와 함께 '국민성장펀드-M.AX 프론티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산업정책과 금융정책 간 연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

#관계부처합동

-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기업의 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 대도약과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을 뒷받침하고, 현장의 투자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기업 수요가 있는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금번 방안을 마련

구분	주요 내용
현장대기 프로젝트 신속 가동 지원	• (이차전지) 이차전지 연관업종(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구미·포항 국가산단 입주 허용 • (반도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산업단지 내 공장 증설 시 기존 건축허가와 분리 추진 • (반도체) 반도체 5대 공정 소부장 실증 지원법인 출연금 등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 (바이오) 오창과학산단 내 바이오 제조시설 증설을 위한 녹지 용도변경 추진 • (식품) 국가식품클러스터 음료제조업 부지를 식·음료제조업 부지로 확장하여 투자유치 활성화
투자 친화적 제도 기반 구축	• 협동로봇 및 이동형 등 신유형 로봇이 산업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산업용 로봇 안전기준 구체화(신유형로봇의 KS·ISO 안전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및 산업용 로봇 정의 정비 등) •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로봇, 방산 등 6대 첨단전략산업 대상 화재안전 성능기반 설계 도입 및 직통계단 설치기준 정비 • 산업 특성을 고려한 도시가스 안전 규제 합리화, 산업단지 입주업종 규제 유연화, 기회발전특구 지정 상한면적 확대 등 제도 기반 합리화 추진

#재정경제부

- 정부가 '모두의 창업'이 단발성 프로젝트를 넘어 창업생태계에 진입할 수 있는 첫 시작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제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8월 20일부터 9월 11일까지 참여자를 모집
- 제2차 모두의 창업은 1차 대비 2배 규모로 확대한 1만 명의 혁신 창업가*를 발굴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창업가의 범위도 예비 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재창업자까지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

* 초기 멘토링 10,000명 → 지역 오디션 2,200명 → 대국민 경연 400명

- 1차·2차 모두의 창업 추진 방향

구분	1차 모두의 창업	2차 모두의 창업
도전의 문	규모	5천 명 혁신 인재 선발 대학·AC 등 100여 곳
	리그	2대 규모 확대 1만 명 발굴 대·중·고, 공공 등 170여 곳
지원체계	지원	일반/기술 + 로컬 트랙 대학 + 청소년 + 소셜 + 글로벌
	문화	창업활동자금 활용처 확대, AI 솔루션 품질 제고 도전경력증명서 창업지원사업·융자 등 우대
기반	신뢰	선배창업가·동기·창업생태계·투자사 전국적인 창업 커뮤니티 구축

참고 자료

- UNCTAD, 「GLOBAL TRADE UPDATE(July/August 2026): Global trade continues to expand amid rising price pressures」, 2026.07.21.
- WTO, 「Global Trade Outlook and Statistics」, 2026.03.
- 한국은행, 「경제전망(Indigo Book)」, 2026.05.
- 산업연구원, 「2026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2026.05.26.
- 한국은행 인천본부, 「최근 인천지역 실물경제동향」, 2026.07.07.
- 현대경제연구원, 「미-이란 전쟁 이후의 경제 전략을 생각하며(2026년 수정 경제 전망) - 2026년 경제성장률 2.7%, 0.8%p 상향 조정」, 경제주평, 2026.04.30.
- 한국금융연구원, 「2026년 수정 경제전망」, 2026.05.31.
- 산업연구원, 「2026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KIET 경제·산업 전망 2026-01(1), 2026.05.26.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26년 1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2분기 전망」, 2026.05.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6년 2/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 TRADE FOCUS 2026년 8호, 2026.03.24.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6년 3/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 TRADE FOCUS 2026년 15호, 2026.06.28.
- 연합뉴스, “트럼프 “19일 호르무즈 완전 개방…이란, 핵무기 갖지 않을 것””, 2026.06.16.
- 연합뉴스, ““60일만 통행료 없는 호르무즈”…종전 MOU 향후 논란 예고”, 2026.06.18.
- 연합뉴스, “이란, 美에 병력철수·배상금 요구…“충족시까지 호르무즈 폐쇄”(종합)”, 2026.08.09.
- 이데일리, “호르무즈 회의론에美증시 이틀째 하락...나스닥 0.6% ↓”, 2026.08.12.
- 산업통상자원부, “월별 수출입 동향(매월호)”.
-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 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별 수출입 통계’ 및 ‘국내 지역별 수출입 통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 금융위원회, 2026.07.2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내산업 공급망 확충한다…‘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산업통상부, 2026.08.0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 보건복지부, 2026.07.2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그린바이오 산업 시장 10조 원으로 키운다…5년 중장기 계획 첫 수립”, 농림축산식품부, 2026.07.2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해외 원정치료 줄인다…첨단재생의료로 난치질환 치료 확대”, 보건복지부, 2026.07.2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제조업 AI 대전환으로 생산성 30% ↑ 불량률 15% ↓”, 산업통상부, 2026.08.0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반도체이차전지 등 ‘현장대기 프로젝트’ 신속 가동…투자·혁신 뒷받침”, 관계부처합동, 2026.08.1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20일부터 모집…10월 초 합격자 1만 명 선정”, 재정경제부, 2026.08.13.
- 재정경제부, “막힌 투자는 뚫고 현장애로는 푸는 기업투자·혁신 지원, 폭염·가뭄 대비 농축수산물 가격·수급안정

만전”, 2026.08.13.

- 관계부처합동,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계획」, 2026.08.13.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6-08호(2026.08.24)

발 행 처 인천연구원
발 행 일 2026년 08월 24일
주 소 (22711) 인천광역시 서해구 심곡로 98
전 화 032-260-2600
홈페이지 www.ii.re.kr

본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인천연구원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